

인사말

수행과 포교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진력을 다하시는 주지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눈앞의 현안부터 멀리는 중장기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느라 오늘 내일을 걱정하다 보니,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구본사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다양한 성취를 일구어가는 모습은, 현시대와 사회가 바라는 종교적 책무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종단의 위상을 어느 때보다 높여간다는 사실과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공의를 나누는 모습은, 종단이 나아가는 길목에 단단한 초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종단의 중요 소임자라는 공심으로 저마다의 원력을 나누어 오셨기에, 오늘은 한층 공감의 분위기에서 종단과 교구의 계획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34대 집행부는 총본산 성역화를 통해 불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스님들의 장래를 위해 한층 복지를 장려할 것이며, 중앙과 교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종단의 미래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골격으로 삼아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종단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현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의 발휘는 예산변화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러기에 교구의 여건에 맞추어 중앙분담금을 그대로 두면서 능률적으로 종단 예산을 구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주요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심은 씨앗이 교구에서 싹을 틔우고,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얻어간다면 이만한 성취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구에서 뿌린 씨앗이 종단으로 회향한다면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뜻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과 교구가 추구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으며, 그 수확 또한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방의 의견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종무행정에 담아내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구본사의 행정강화를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여 종무행정의 개선을 주의 깊게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교구본사의 역할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복지사업, 그리고 교구본사간의 깊은 교류와 협력은 우리 종단의 미래 지향적 변화이자 큰 물결입니다.

언제나처럼 한결같은 정진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산중의 책임자로서 불법홍포에 진력하여 공심으로 종단을 위하겠다는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